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Vol.9 No.2, 51-73, 2026.10.
http://dx.doi.org/10.23089/jdca.2026.9.2.003
pISSN 2635-6856 eISSN 2734-0392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의 서신 기록을 통해 재조명한 육영공원(育英公院)

Revisiting Yugyeong Gongwon: Insights from Homer B. Hulbert's Letters

김경민(Kyeongmin Kim)[1] | [1](제1저자)전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부교수 | kmkim@jnue.kr
김성식(Seongshik Kim)[2] | [2](교신저자)전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 sskim77@jnue.kr

목 차

1. 서론
2. 헐버트 서신에 나타난 육영공원의 연대기적 재구성
2.1. 제1기(1885-1886): 육영공원 설립 과정과 헐버트의 내한
2.2. 제2기(1886-1888): 육영공원의 초기 운영
2.3. 제3기(1888-1891): 육영공원의 확장 및 위기
3. 종합 논의 및 맺음말

초록

본 연구는 1885-1891년 호머 헐버트의 서신을 중심으로 육영공원의 설립 준비, 초기 운영, 교육 및 학생 규모의 확대와 운영 갈등을 연대기적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시기별 서신의 구체적인 진술을 연결하여 교육 활동과 운영 여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내한 이전의 교육적 준비와 역할 인식은 개교 이후의 수업 경험과 연결되었으며, 기초 영어 학습과 수학, 지리, 정치경제학 등의 교육이 함께 전개되었다. 헐버트의 한국어 학습과 활용은 학생과의 소통 및 학습 지원을 중시한 교육적 관심을 보여준다. 또한 운영상의 불만과 계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학생 증원과 교육 확대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었고, 1891년의 육영공원 퇴진은 주거 및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다.

※ 키워드 : 육영공원, 헐버트, 근대 교육, 서신 자료, 영어 교육

ABSTRACT

This study draws on Homer Hulbert's letters from 1885 to 1891 to trace the development of Yugyeong Gongwon. Building on earlier research, it examines classroom teaching, student support, and administrative conflicts from his perspective. The letters describe English instruction alongside other subjects and suggest that his knowledge of Korean helped him support students' learning. They also reveal his continued hopes for the school's expansion despite administrative disputes and contractual uncertainty. Read critically and chronologically, these personal accounts offer a closer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 Keywords : Yugyeong Gongwon, Homer Hulbert, personal correspondence, modern education, English education

• 이 연구는 2026년 전주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논문접수 : 2026.09.09. • 최초심사 : 2026.09.23. • 심사완료 : 2026.10.12.

1. 서론

육영공원(育英公院)은 1886년(고종 23년) 조선 정부가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설립한 근대식 관립 교육기관이다. 육영공원의 설립은 1883년 외교사절단 보빙사(報聘使)의 방미 이후 고조된 근대적 교육 제도에 대한 관심과 근대적 인재 양성의 필요성, 그리고 청(淸)나라의 내정간섭을 견제하려는 고종의 외교적 구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였다(최보영, 2012).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육영공원의 초대 미국인 교사 세 명 가운데 하나인 호머 베절릴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가 남긴 서신 기록을 통해 그의 시각에서 육영공원의 운영과 변화 양상을 재조명하고,[1] 더불어 조선 후기 근대화 과정에서 그가 수행한 교육적 역할과 지향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2]

육영공원에 관한 연구는 설립 및 제도적 변천, 개화기 영어교육 등을 다룬 연구들(문용, 1976; 이종배, 1978; 이광린, 1998, 1999)을 거쳐, 교사 및 학생의 기록과 교과서 등의 사료를 활용해 실제 학교 운영과 교육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3] 김경용(2010)은 육영공원 학생이었던 박경원(朴經遠)의 기록인 『육영공원일록(育英公院日錄)』을 바탕으로 육영공원의 학생 구성과 출석, 시험 운영 양상 등을 분석하였다. 최보영(2012)은 헐버트 서신, 관찬(官撰) 기록 등을 활용해 학교 설립의 정치적 배경, 교사들의 교육 활동, 육영공원 폐원 과정 등을 고찰하였고, 서명일(2014)은 육영공원의 학생이었던 정운호(鄭雲好)의 교과서와 헐버트 서신을 분석하여 영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대 지식의 수용 양상 등을 밝혔다.[4]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헐버트 서신의 구체적 진술을 연대기(年代記)적으로 연결해 육영공원의 실체를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5] 이를 위해 주요 관련 서신 구절을 본문에 제시하고 앞뒤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한 이전의 준비 과정이 개교 이후의 수업 경험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살펴보고, 서신에 기록된 구체적인 수업 내용, 학습 지원 등의 교육 활동과 학교 운영에 대한 헐버트의 불만, 성취감, 기대 등의 내면적 인식을 결합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접근은, 당시 교육 활동과 학교 운영 여건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헐버트가 육영공원의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했는지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한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분석 대상 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헐버트 서신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육영공원 설립 과정과 헐버트의 내한을 다루는 제1기(2.1절), 개교 이후의 초기 운영기인 제2기(2.2절), 그리고 학교 규모의 확장과 운영상의 위기가 교차하는 제3기(2.3절)로

1) 나머지 두 명의 교사는 델젤 애들버트 벙커(Delzell Adelbert Bunker, 1853-1932)와 조지 윌리엄 길모어(George William Gilmore, 1858-1933)이다.

2)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선행연구(김경민, 2009)를 바탕으로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고 분석을 심화 및 확장하였다.

3) 이광린(1999)의 초판은 1969년에 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전정판을 참조하였다.

4) 강세영(2013)은 헐버트의 개인 서신을 활용하여, 기존의 헐버트에 대한 이상화된 평가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5) 헐버트의 서신 자료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i815.or.kr/)에 소장된 총 485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서신들은 1883년부터 1912년까지의 시기를 포괄하며, 헐버트의 내한 이전 시기, 육영공원 재직 기간, 이후 한성사범학교와 관립중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그리고 독립운동 및 외교 활동에 관여하던 시기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원문은 대부분 영어 필사본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일부는 디지털 이미지와 전사 텍스트가 함께 제공되고, 현대 한국어 번역문 또한 아카이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서신의 대다수는 부모, 형제자매, 아내 메이(May) 등 가족에게 보내진 것이며, 일부는 친구, 선교사 동료, 정치적 지인 등을 수신자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1885년부터 1891년까지 헐버트가 작성한 서신을 주요 분석 자료로 삼는다.

구분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서신의 작성 시점에 따라 각 시기의 주요 쟁점과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시기에 성과나 위기가 집중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헐버트 서신에 나타난 육영공원의 연대기적 재구성

2.1 제1기(1885-1886): 육영공원 설립 과정과 헐버트의 내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육영공원은 당초 1885년 초 개교를 목표로 하였으나, 1884년 12월에 발생한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인해 개교가 연기되어 1886년 9월 23일에 이르러서야 공식 개교하였다 (최보영, 2012). 이러한 개교 지연은 헐버트에게 내한 이후 수행할 교육 활동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1885년에 작성된 헐버트의 서신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를 제시한다.

먼저 1885년 3월에 작성된 헐버트의 서신을 보면, 헐버트가 한국으로의 파견을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는 해당 직책의 성격과 자신의 향후 진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래 서신 내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아직은 틀림없이 제가 이 일에 계속 종사할 것이라고 결론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런 것들을 많이 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실로 저를 곤혹하게 하는 것들이 다소 있습니다.[6)]

이 대목은 헐버트의 조선행 결정이 즉각적이고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885년 말에 작성된 서신들에서는 이러한 유보적 태도가 점차 사라지고, 동료 교사의 모집에 직접 관여하며 향후 육영공원에서 수행할 교육 및 행정적 역할을 전제로 한 준비가 본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 바로 어제 이튼(Eaton)으로부터 그가 벙커(Bunker)에게 교사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벙커가 이를 수락할 것이라 확신하며, 필요하다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출발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튼은 저에게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아버지께서 그 다른 빈 자리를 채울 누군가를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저의 반의 포드(Ford)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오고 있지만, 망설여집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군인가는 전적으로 저에게 달려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에 쾌히 응할 사람은 수십 명을 알고 있지만 [...] 이 세 번째 인물의 선발은 거의 전적으로 저에게 맡겨진 상황입니다.[7)]

위에 인용한 서신은 벙커가 교사 선발 과정의 비교적 후반부에 합류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서신은 당시 미국의 교육감이었던 존 이튼(John Eaton)이 헐버트에게 이른바 세 번째 교사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이후 헐버트, 벙커와 함께 육영공원에 부임한 길모어(Gilmore)를 가리키

6) 「헐버트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서신」, 1885년 3월 1일, 뉴욕 (관리번호 3-008785-006).
7) 「헐버트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서신」, 1885년 12월, 뉴욕 (관리번호 3-008785-010). 정확한 작성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같은 서신에서 보스턴의 공립학교 제도와 학교 신문 운영을 조사하려는 헐버트의 계획도 언급되는데, 이는 최보영(2012)에서 언급되었듯 미국의 교육 체계를 조선에 적용하기 위한 헐버트의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저는 공립 학교들의 집단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이번 방학 때 어쨌든 보스턴에 갈 것입니다. 이튼(Eaton)은 제가 공립학교 시스템에 대해 철저한 개념을 갖는 것이 좋겠으며, 또한 학교 신문의 운영에 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제는 한 번의 방문으로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헐버트는 또한 일본에서의 교육 경험을 가진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에게도 자문을 구할 계획을 밝혔다.

> 우리 둘 다 그동안 줄곧 일을 했고, 저는 일주일을 통째로 쉬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쉬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 [...] 세미나 개별 지도반에 가서 좋은 강연 두 편을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곳에서 최고 작품의 저자인 그리피스(Griffis) 씨의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날 기회를 찾아 그 나라에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눌 생각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같은 종류의 일에 종사했으며, 비록 조선에 가 본 적은 없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8)]

1885년 말 서신들을 살펴보면, 헐버트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이미 교사라는 한정된 범주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워싱턴 D.C.에서 1885년 12월에 작성한 아래의 서신은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원래는 내일 뉴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이튼(Eaton)은 제가 이곳에 더 머물며 교육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 방식들을 충분히 익힐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 그 결과, 저는 이전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앞으로 제게 요구될 업무의 성격을 훨씬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무엇보다도,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튼은 뉴욕에서 만나야 할 인물들의 명단과 방문해야 할 기관들, 그리고 조사해 볼만한 교수·교육 방식들을 정리해 주었는데, 이는 제가 혼자서는 결코 떠올리지 못했을 내용들이었습니다.[9)]

최보영(2012)과 서명일(2014)이 언급한 내한 전 준비 과정을 이 일련의 서신과 연결하면, 초기에 헐버트가 조선행에 대해 품었던 주저함은 존 이튼의 조언과 헐버트 자신의 다각적인 노력을 계기로 점차 해소되었고, 그 결과 그가 단순한 교사로서가 아니라 향후 육영공원의 교육제도와 운영을 함께 구상하는 역할을 수행할 준비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86년 7월 4일 벙커, 길모어와 함께 내한한 헐버트는 개인적 재정 상황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86년 7월 10일에 작성한 서신에서 그는 미국에 남겨 둔 채무 문제를 언급하

8) 「헐버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 1885년, 뉴욕 (관리번호 3-008785-012). 정확한 작성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9) 「헐버트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서신」, 1885년 12월 30일, 워싱턴 D.C., 관리번호 3-008785-011.

며, 육영공원에서의 근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10]

>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반드시 조달해야 할 물품들이 많이 있지만,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곳에 남겨 둔 채무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 일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저희 각자는 한 달에 약 30 달러(혹은 40달러 정도)를 생활비로 쓰게 될 것이고, 그 외의 금액은 모두 순수한 수입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물품을 런던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들여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금화 기준으로 약 100달러 정도는 저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11]

개인적 경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는 별도로, 이후 서신들은 헐버트가 조선에서 맡게 된 교육적 역할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 역시 분명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헐버트는 내한 직후부터 조선에서의 교육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언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최보영, 2012). 다음 두 서신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 저는 어제부터 비로소 한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스스로 꾸준히 학습하며 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영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인 교사를 고용해 직접 대화를 통해 말하기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매우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켰고, 지금은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12]

>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한 달쯤 지나면 글쓰기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 실제로 저는 매일 직접 써서 익힌 표현의 범위 안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더우드 씨와 그의 하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13]

위의 서신들을 바탕으로 볼 때, 헐버트는 한국어를 단순한 개인적 관심사가 아니라, 현지 사회와 소통하고 학생들을 이해하며 수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실천적 도구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헐버트가 육영공원을 조선의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는 근대 교육기관으로 구상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살펴본 1886년 7월 16일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는 헐버트가 교육과정 편성, 행정 절차, 그리고 고종(高宗)과의 소통에까지 직접 관여하며 학교 운영의 밑그림을 구체화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 오늘 아침에는 학교의 전체 교육과정 편성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보냈으며, 그것을 곧 국왕께 검토와 재가를 받기 위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예비 과정은 [영어] 읽기 및 쓰기, [영어] 철자, 수학, 지리, 역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 동안 이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원할

10) 강세영(2013)은 헐버트가 처한 재정적 상황을 육영공원 재직기 교육 활동의 주요 동인(動因)으로 해석한 바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언급된 채무 문제를 당시 그가 직면했던 여러 현실적 여건 중 하나로 파악하며, 이를 교육 활동 전반을 이끈 핵심 동기로 직접 연결 짓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11)「헐버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 1886년 7월 10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24).

12)「헐버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 1886년 7월 14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25).

13)「헐버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 1886년 7월 16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26).

경우 이수할 수 있는 4년제의 정규 과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자료들은 오늘 오후에 모두 한문으로 번역되어 저녁에 국왕께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후 며칠 내로 국왕을 알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왕을 직접 만나는 자리는 이 일을 보다 신속하고 권위 있게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왕을 직접 대면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얻기 어려운 일정한 위신과 신뢰를 부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서신은 육영공원이 단순한 영어 교육기관을 넘어, 폭넓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고등 교육기관으로 구상되었음을 시사한다. 헐버트와 동료 교사들은 영어 읽기, 쓰기 등과 같은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수학, 지리, 역사 등 다양한 교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이수하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교사들은 2년 과정의 예비 과정을 이수한 뒤, 학생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4년간의 정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총 6년제 교육 체계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사들의 교육 구상은 당시 조선 정부가 제정한 『육영공원설학절목』(育英公院設學節目, 1886)에서 육영공원의 교육 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명백한 불일치를 이루는 것으로, 교사들의 교육적 이상과 정부가 승인한 제도적 틀 사이에 간극이 존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광린, 1999 참조).[14] 이러한 차이는 육영공원의 성격과 운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이후 육영공원의 제도적 전개 과정에서 어떠한 긴장과 조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15]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육영공원은 1886년 9월 23일 공식적으로 개교하였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헐버트의 제1차 계약 기간(1886-1888)에 해당하는 서신을 분석하여, 개교 이후 육영공원에서의 실제 교육 활동과 수업 운영의 구체적 양상을 고찰한다.

2.2 제2기(1886-1888): 육영공원의 초기 운영

육영공원 개교 직후에 작성된 헐버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가 교육 활동에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헐버트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초기 수업 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김경용(2010)과 최보영(2012)에도 학생들의 초기 학습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다음 서신에서는 수업 둘째 날의 인상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학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업 둘째 날이었는데, 지금까지의 진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학생들은 총명하고 반응이 빠르며, 가능한 한 빨리 배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저는 가르치는 일을 대단히 즐기고 있으며, 이 일은 제게 참으로 큰 기쁨을 줍니다.[16]

14) 고종실록(高宗實錄)에 기록된 육영공원설학절목(1886년 8월 1일/음력 7월 2일 작성)은 육영공원의 설립과 운영 방향을 규정한 13개 조항의 학칙이다.

15) 최보영(2012)은 교육 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3년마다 대고(大考)를 시행하는 규정에서 3년 학습 체제를 추론하고, 6년제 구상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다. 서명일(2014)은 초학(初學)과 그 이후 단계를 구분한 절목(節目)에 예과 및 본과의 구상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하면서도, 초학 단계의 교육 연한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헐버트는 학생들의 성품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는데, 같은 서신에서 그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뿐 아니라, 온화하고 사교적인 태도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 나는 가능한 한 빨리 학생들과 친해지고 있습니다 [...] 그들은 진정으로 친절하고 유쾌한 동료들이며, 그들과 굳건한 관계를 맺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낍니다 [...] 모두 밝은 성격을 지녔고,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언제나 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 서신을 통해 헐버트가 신뢰와 친근함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을 통해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육영공원 초기 운영이 연착륙하는 데 일정 정도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헐버트는 영어 학습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의 빠른 진전에도 주목하였다. 길모어(Gilmore)의 『Korea from Its Capital』(1892)에서는 이러한 빠른 진전을 학생들이 이미 한문 교육을 통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충분히 훈련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헐버트는 학생들의 학습 속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 이틀간의 수업 동안 학생들은 대문자와 소문자 알파벳을 익혔고, land, head, man, arm, yes, no, face, black-board, scholar, teacher, mouth, nose, eye, one, two, three, see, hear, I, you, am, a, the, paper, hat, cat, dog, mouse, all 등 여러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 단어들의 철자를 쓰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어들을 매우 빠르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김명배(2006)에 따르면, 『육영공원설학절목』(1886)은 수업 시간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 둘째 날의 헐버트 서신은 이러한 공식 규정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보다 상세히 보여준다.

> 저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길모어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벙커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와 3시부터 4시까지 가르칩니다 [...] 저는 학생들이 생기가 도는 오전 첫 시간을 골랐고, 오후에는 그들이 지쳤을 때인 두 번째 시간을 골라 시간을 나눔으로써 학습 부담을 덜 시켜 저 역시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는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힘든 일은 없습니다.

위 서신을 통해, 하루 6시간의 수업을 세 명의 교사가 2시간씩 나누어 담당하였으며, 헐버트의 경우 오전 9시와 오후 2시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집중도와 피로도를 고려한 결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서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우리는 학생들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0세가 넘었고, 많은 이들이 30세에 가깝습니다.

1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서신은 1886년 9월 21일 헐버트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로 분류되어 있다(관리번호 3-008785-032). 그러나 육영공원의 공식 개교일이 1886년 9월 23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신의 작성일과 수업 둘째 날이라는 내용 사이에 시기적 불일치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서신의 작성일 및 관련 기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886년 수업 둘째 날에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은 또 다른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헐버트는 이 서신에서 '위험(danger)'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사용해 육영공원이 직면하고 있던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하나는 육영공원의 설립을 저지하려 했던 청(淸)나라 측의 개입 문제이다. 헐버트는 청이 육영공원이 장차 지니게 될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우려하여, 그 설립 과정에서 조직적인 방해를 가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육영공원 내부에서 드러난 신분 질서에 따른 갈등 문제이다. 헐버트는 모든 학생들이 형식적으로는 양반 신분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료 출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학생들과 함께 수학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교실 내에 존재했음을 지적한다. 이는 육영공원이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 평등한 학습 공간을 지향하고 있었음에도, 조선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신분 의식이 교육 현장에까지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17)]

> 저는 중국이 우리 학교를 얼마나 강하게 방해하려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학교가 곧 얼마나 큰 힘을 가질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 지금의 가장 큰 위험은 지위가 높은 학생들이 낮은 지위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남아 있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886년 10월 2일 누이에게 보낸 서신에서 헐버트는 당시 육영공원에서의 자신의 업무가 아직은 비교적 수월하고 감당할 만한 수준임을 언급한다. 또한, 수업이 시작된 지 불과 2주째에 접어든 이른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헐버트는 학생들이 보여준 꾸준한 학습 열의와 뛰어난 기억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밝힌다 (김경용, 2010; 서명일, 2014). 실제로 학생들은 이미 "Six men will come to the house tomorrow(여섯 명이 내일 집으로 갈 것이다 "와 같은 문장을 습득할 정도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업적 열정에 호응하여, 헐버트 역시 교실 안의 수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가정을 빈번히 방문하는 등 학교 밖에서도 교육적 노력을 기울였던 정황이 서신을 통해 확인된다. 헐버트는 "이곳에서의 일주일 동안 학생들을 찾아다니는 횟수가 뉴욕에서 지냈던 동안의 가정 방문 횟수보다 많다"고 표현하며 당시의 바쁜 활동상을 전하였다. 나아가 그는 육영공원에서의 교육 활동을 단순한 일상적 직무로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 상당한 성취감과 장래에 대한 기대를 느끼고 있음을 누이에게 간접적으로 피력한다.

> 우리 학교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첫 2주일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열의도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다. 내무대신과 부대신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다른 누구 못지않게 빠르게 배우고 있다 [...]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근사하게 지내고 있는지 너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일은 즐겁고 고되지 않다 [...] 이곳에서 우리 학교가 매우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왕께서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포울크(Foulk) 씨는 자신도 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일을 하며 활기에 차 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18)]

17) 김경용(2010, 56)은 같은 시기의 서신에서 학교 담당 관리들도 수업에 참여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높은 지위의 학생들이 공동 수업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는 대응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1886년 10월 3일 어머니에게 보낸 서신에서 헐버트는 육영공원 개교 초기에는 교재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다.[19)]

> 아직까지 그들이 볼 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배편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본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20)]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이 시기의 수업은 『육영공원설학절목』(1886)에 명시된 수학이나 지리와 같은 고급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습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약 200여 개의 영어 단어와 함께 다양한 관용 표현 및 기본적인 동사 형태를 학습한 것으로 나타난다. 헐버트는 또한 학업적 성취 못지않게 학생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교사로서 자신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헐버트가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 형성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우리 학교는 운영을 시작한 지 꼭 2주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성공적입니다. 물론 이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의 호의를 얻고 있으며, 그들도 우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매우 좋아하고 우리도 그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가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곳이 될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디딘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21)]

교사와 학생 간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는 헐버트가 한국어 습득에 쏟은 노력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그는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어 학습에 힘썼고, 이는 결과적으로 육영공원 내에서 그가 추구하던 교육적 소통 구조를 다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육영공원의 초기 시험의 운영 방식에 관해서는 관련 사료 간의 상호 대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김경용(2010, 42-44)은 『육영공원일록』과 헐버트 서신의 월례 시험 기록을 대조하여, 양자의 시점이 일치하며 구술 및 필기시험이 병행되었음을 밝혔다.[22)] 이러한 사실은 서신 원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1886년 11월 21일에 시작되어 24일 자 추신으로 이어진 서신에서 헐버트는 두 번째 월례 시험과 그 결과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다음 주 목요일이나 어쩌면 금요일에 학교의 두 번째 월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수요일 저녁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두 번째 월례시험이 있었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답안지 중 상당수가 거의 완벽했습니

18) 「헐버트가 누이에게 보내는 서신」, 1886년 10월 2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34).

19) 개교 초기에 나타난 교재 부족 문제를 육영공원 운영 기간 전체의 상황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후 육영공원의 학생이었던 정운호(鄭雲好)가 사용한 철자 교본, 문법서, 사전 및 독본 등의 기록은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 교재가 점차 정비되었음을 보여준다 (서명일, 2014, 188-193).

20) 「헐버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 1886년 10월 3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36).

21) 「헐버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 1886년 10월 6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37).

22) 『육영공원설학절목』(1886)에 따르면, 육영공원에서는 매월 말에 실시되는 월고(月考), 연 1회의 연고(年考), 그리고 3년마다 시행되는 대고(大考), 이렇게 세 종류의 시험 제도가 운영되었다.

다. 그들은 책도 아주 잘 읽어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잘 해 주어 저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새로움이 점차 사라지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잃을 우려가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징조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일찍 수업에 나오고, 수업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뒤처질까 걱정했던 몇몇 학생들은 따로 뽑아 가르쳐 왔는데, 이번에 잘 해냈습니다. 학습 수준 역시 대체로 고른 편이었습니다..[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영공원 개교 직후에는 영어를 중심으로 한 기초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수학, 지리, 역사 등의 심화 과목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교육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에 인용되는 서신은 이들 과목이 1886년 12월 초를 전후하여 교육과정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학과 지리 등의 과목, 그리고 영어 문법 수업을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이 이러한 과목들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들에게 곱셈표를 주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이미 곱셈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24]

이종배(1978) 등 기존 연구에 따르면, 헐버트는 영어 교재만을 활용해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영어 중심 교육 방식'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당시 한국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습득해 나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이면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1886년 12월 9일 자 서신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저는 매일 한국인 교사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이제는 제법 말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인들과 대화할 기회도 충분히 있어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의 한국어 교사는 영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저는 이것을 오히려 반기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국어로 직접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에서 확인되듯이, 헐버트는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모국어의 매개를 최소화하고 목표 언어로 직접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모국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목표 언어를 통해 직접 의미를 구성하도록 하는 이른바 직접교수법(Direct Method)의 원리와 맥을 같이한다. 이를 두고 헐버트가 육영공원에서의 영어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영어에 직접 노출되도록 유도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즉,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영어로만 이루어진 수업'의 배경에는 이러한 헐버트의 실제 언어 학습 경험과 소통 중심의 지향이 일정 정도 작용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1887년 초 헐버트는 육영공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누이에게 전하고 있다. 같은 해 3월 16일 서신에서 헐버트는 자신의 교육 활동을 여전히 큰 열의와 강한 자부심 속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해당 서신에서 헐버트는 지금까지의 육영공원 재직 기간 자신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23) 「헐버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 1886년 11월 21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43).
24) 「헐버트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서신」, 1886년 12월 9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45).

지난 한 해 동안 이 일의 의미가 내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게 되었는지 너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제 이 일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힘든 과업이 될 것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그 무게와 의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백 배는 더 크게 느껴진다. 물론 거의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그다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25]

육영공원의 휴일 운영에 관한 서신에서는 계약 규정과 학생의 출석 의무, 교사들이 기대한 수업의 연속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다. 헐버트는 1887년 4월 6일 자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드시 학교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는 휴일이 많은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명시된 미국의 한 휴일에도 우리는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휴일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26]

『육영공원설학절목』(1886)에 따르면, 육영공원은 미국의 공휴일에 휴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헐버트와 동료 교사들은 잦은 휴일이 학생들의 학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공휴일에도 수업을 강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헐버트를 비롯한 교사들이 제도적 휴식보다 학습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광린(1999)에 따르면, 육영공원에 부임한 미국인 교사들은 최초에 2년 계약으로 임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1888년 4월이 1차 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에 해당한다. 이광린은 또한 조선 정부가 교사들의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나아가 육영공원 자체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상당 기간 고심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부의 유보적 태도는 육영공원의 높은 운영 비용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우려와도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888년 초부터 헐버트가 어머니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점차 언급되기 시작한다.

이제 학교 수업은 두 주밖에 남지 않았고, 그 뒤에는 한 달간의 휴가가 있습니다. 휴가가 오기 전에 딘스모어(Dinsmore)가 우리 문제를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대체로 정부가 우리를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정만 된다면 마음이 한결 놓일 것 같습니다.[27]

위 서신에서 알 수 있듯, 헐버트는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일정한 불안을 느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헐버트는 육영공원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학업 성취를 직접 목격하면서,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을 떠나야 할 가능성은 헐버트에게 아쉬운 선택지였을 가능성이

25) 「헐버트가 누이에게 보내는 서신」, 1887년 3월 16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51).
26) 「헐버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 1887년 4월 6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52).
27) 「헐버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 1888년 1월 22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62).

크다. 같은 서신의 후반부에서 헐버트는 학생들의 학업 진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난 2년간의 교육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다 (김경용, 2010).

> 그들은 열의를 가지고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 저희 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반의 몇몇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연말이 되면 그 학생은 비슷한 기간 동안 공부한 어떤 한국인보다도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이지만, 대다수의 학생들 역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두 해만 지나면 영어에 대해 보여줄 결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헐버트는 당시 조선 정부가 육영공원의 존속 여부와 교사 계약 갱신 문제를 두고 심각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는 못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약 갱신 문제의 향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 결과가 장기간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가족에게 보낸 여러 서신에서 불안과 피로감을 드러낸다.

> 이번 보내게 되는 서신을 통해 내가 이곳에 남게 될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겠다. 딘스모어는 지난 금요일에 궁궐에 들어가 우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지쳐 버려서, 이제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이것 역시 내가 이미 여러 차례 말해 온 이야기의 반복일 뿐이다.[28]

위 서신의 내용은 계약 문제가 헐버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며, 그가 장기간 결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점차 무력감과 체념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결국 헐버트는 조선 정부와의 계약을 갱신하여 3년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888년 7월경 결혼을 위해 미국으로 일시 귀국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29] 다음 절에서는 헐버트의 두 번째 계약 기간(1888-1891)의 서신을 중심으로, 그의 교육 활동이 귀국 이후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육영공원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2.3 제3기(1888-1891): 육영공원의 확장 및 위기

두 번째 계약 기간(1888-1891)에 들어서면서 헐버트는 육영공원에서의 교육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학교의 운영과 성과를 저해한다고 판단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개입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광린(1999)은 길모어(Gilmore)의 『Korea from Its Capital』(1892)을 인용하여, 육영공원 운영을 담당하던 조선인 관료들이 학교 운영을 위해 지급된 재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출석 관리에도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 헐버트의 서신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그는 해당 관료들의 태도와 행정 관행에 대해

28) 「헐버트가 누이에게 보내는 서신」, 1888년 4월 9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68).

29) 김경용(2010)은 『일록』에 나타난 귀국과 귀환 시점을 근거로, 헐버트가 개학 이후에도 상당 기간 자리를 비웠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다만 본고는 부재에 대한 승인과 계약 조건, 대체 수업의 범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재 사실만으로 헐버트의 재직 기간 전체의 교육 활동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점차 강한 불만과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 학교 운영을 맡은 관리들은 왕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한 연간 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게으름을 피우며 학교 대신 집에 머무르는 경우, 그로 인해 절약된 비용은 자연스럽게 학교 관리들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들은 국왕의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늘리는 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기적인 출석을 강제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30]

헐버트는 학교를 감독, 관리하던 관료들의 행정적 태만과 이해관계에 주목하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육영공원의 교육적 성과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입과 개혁 요구로 나아가게 된다.

이 시기 육영공원은 위기 국면에 접어들어 있었으며, 헐버트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버트는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육영공원이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육영공원의 운영을 담당한 관료들과의 갈등도 감수할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1888년 11월 29일 자 아버지에게 보낸 서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만약 제가 이 학교를 제대로 추슬러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인 기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학교를 반드시 성공시킬 생각입니다. 저는 벙커를 만나 함께 계획을 세우고 [...] 학교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부 관리들을 몹시 화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는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31]

육영공원의 위기가 학생들의 불성실이나 학습 의지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 시기 헐버트의 서신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32] 헐버트는 개교 초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습 의욕이 강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묘사되며 이는 다음 서신에서도 확인된다.

> 학생들은 날마다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희 셋은 각자 담당 과목을 맡아 수업을 시작했는데, 벙커는 문법을, 길모어는 지리를,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학생들에게 매우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학적 개념을 마치 오랫동안 갈망해 온 것을 발견한 듯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33]

한편, 교육 내용의 확대는 이미 1886년 12월에 교사들의 과목 분담(문법, 지리, 수학 등) 단계부터

30) 「헐버트가 누이에게 보내는 서신」, 1888년 11월 24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81).

31) 「헐버트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서신」, 1888년 11월 29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83).

32) 김경용(2010)에 따르면, 좌원(左院) 학생들의 경우 공무와 학업 병행 및 출석 조정 조치가 있었으므로, 낮은 출석률을 단순한 학습 의지 결여로 단정하기 어렵겠으나, 우원(右院) 학생인 박경원(朴經遠) 역시 잦은 결석을 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출석률 저하를 관직 수행이라는 제도적 맥락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33) 「헐버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 1888년 12월 5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84).

비롯되었고, 1888년 12월에는 헐버트가 담당한 정치경제학 수업으로 이어졌다 (김경용, 2010).

나는 학생들에게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물론 아직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이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수업이 매우 보람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과목을 이처럼 이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학생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연령에 있으며, 나는 그들에게 정치 경제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인식시키고자 한다. 이는 국제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단순히 영어를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한다.[34]

위 서신에서 확인되듯이, 헐버트는 정치경제학과 국제법과 같은 과목이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영어 그 자체의 습득보다 더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되었듯, 이러한 관점은 헐버트가 육영공원을 단순한 영어교육 기관으로 보지 않았으며,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근대 교육을 수행하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1889년 1월, 헐버트는 육영공원을 확장시키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 공사관을 통해 고종에게 여러 제안을 전달하였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요구는 학생 정원의 확대였으며, 헐버트와 동료 교사들은 40명 이상의 추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육영공원의 장기적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헐버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어제 벙커와 나는 공사관을 통해 국왕께 서신을 보내어, 학생 수를 40명 더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루어지기를 크게 기대하고는 있으나, 물론 확신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학교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맡기고 있다.[35]

김경용(2010)에 따르면 헐버트는 1889년 2월 18일 서신에서 국왕이 요청을 받아들여 3월에 40명의 새 반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이어 4월 21일 서신에서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36]

> 우리 학교 일은 최근에 큰 발전이 있었다. 국왕이 23명의 학생이 있는 새로운 학급을 지정해 주었다. 그 학생들은 우리가 국왕에게 요청한 사람들이다 [...] 새 학급은 월요일에 수업을 시작한다.[37]

이 시기 헐버트는 학생 증원 등 육영공원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학교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그가 느낀 소회는 1889년 6월 9일 자로 어머니에게 보낸 서신에 잘 나타나 있다.[38] 그는 해당 서신에서 "학교의 위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언급하며, 학교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한편 향후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드러냈다.

---

34) 「헐버트가 아우에게 보내는 서신」, 1888년 12월 16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86).
35) 「헐버트가 누이에게 보내는 서신」, 1889년 1월 18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88).
36) 김경용 (2010)에 따르면, 서신의 23명이라는 인원은 『육영공원일록』등의 기록에 나타나는 선발 인원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보고 시점이나 선발 및 감하(減下) 과정의 단계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7) 「헐버트가 누이에게 보내는 서신」, 1889년 4월 21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92).
38) 「헐버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신」, 1889년 6월 9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093).

한편, 헐버트는 꾸준히 한국어 학습을 이어갔으며 1890년 무렵에는 상당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언어 능력은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육영공원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때 아래 서신에서 확인되듯 헐버트가 한국어로 보충 설명을 제공했다는 점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나는 선교사들을 제외하면 진지하게 조선어를 익히고 있는 유일한 외국인이다. 벙커도 오래전에 잠깐 조선어를 공부했으나 큰 실수를 하나 범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학생들이 나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벙커가 조선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 몇 가지 이유로 벙커(Bunker)는 이곳에서 인기가 별로 없다. 그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디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다 보니 은둔자가 된 셈이다..[39]

위 서신에서 헐버트는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했던 벙커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헐버트에 따르면, 자신보다 늦게 내한한 그의 아내 메이조차도 벙커보다 한국어를 더 잘 구사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헐버트는 벙커가 학생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호응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사의 언어 능력이 수업 이해뿐만 아니라 교사-학생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1890년 4월 27일 서신에서도 헐버트는 육영공원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전한다. 헐버트는 이 해에 새로 여섯 명의 학생이 추가로 입학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한다.

> 우리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학교는 매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왕께서 여섯 명의 새로운 학생을 학교에 임명하셨는데, 이들은 다른 곳에서 이미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는 감리교 학교에서, 또 일부는 전신국에 부속된 작은 학교에서 공부한 이들입니다.[40]

같은 서신에서 헐버트는 육영공원의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제시한다. 그는 정부가 최대 500명에 이르는 학생을 육영공원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교사들이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정부가 학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자비로 비용을 충당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입학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다음의 서신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 정부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모든 학생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자신의 경비를 감수하면서라도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모로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월 연례 시험을 위해 궁궐을 방문할 때 이 제안을 직접 건의할 계획입니다.

39) 「헐버트가 아우에게 보내는 서신」, 1890년 2월 11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100).

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에는 해당 서신(관리번호 3-008785-102)이 아우 헨리(Henry)에게 보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제 수신자는 부모님인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육영공원의 학생들은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헐버트는 자비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입학을 희망하는 수요가 존재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의 학생 선발이 육영공원의 재정적, 제도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이 제안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지만, 해당 서신은 육영공원의 장기적 발전을 염두에 둔 헐버트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구상을 잘 보여준다.

두 번째 계약 기간의 종료가 다가오면서 헐버트는 조선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서신을 통해 드러낸다.[41] 1890년 11월 1일 자 서신에서 그의 아우는 미국으로 귀국하여 교직을 맡을 것을 제안하지만, 헐버트는 이에 응하지 않고 조선과 그곳에서 수행 중인 자신의 일에 깊이 애착을 느끼고 있음을 설명한다.

> 너의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길 바란다. 만약 네가 이곳에 와서 이 상황을 직접 살펴본다면, 내 선택을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는 이제 비로소 무언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고 느끼며, 그것을 이루어낼 때까지 이곳에 머물고 싶다. 나는 조선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만큼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어, 그들이 나를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한다.[42]

위 서신에서 헐버트는 자신이 육영공원에서 수행해 온 교육 활동에 대해 강한 책임감과 지속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한다. 헐버트는 자신의 역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계속 남아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 헐버트는 계약이 갱신되어 향후 3년간 추가로 조선에 체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헐버트의 계약은 결국 갱신되지 않았으며, 그는 1892년 1월 미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이광린(1999)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1891년 무렵에 이미 육영공원에 대한 관심을 잃고 있었으며, 교사 가운데 단 한 명만 계약을 갱신하려는 방침을 세웠고, 그 결과 벙커만이 3년 계약으로 잔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1891년 12월 13일 자 헐버트가 부모에게 보낸 서신은, 그의 계약 갱신 실패가 보다 복합적인 사정 속에서 전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저는 조선 정부와의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사정은 너무 복잡하여 지금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갱신에 앞서 정부는 학교 부지를 시내 외곽에 위치한 독일 영사관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그 대가로 독일 영사가 사용하던 관사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해당 부지 내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살 만한 집이었습니다 [...] 그러나 그 집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각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겨우 맞을 정도로 매우 협소했으며, 두 공간을 합쳐도 서울에 있는 어느 선교사 주택이나 기혼자가 거주하는 집보다 작았습니다 [...] 실제로 이주할 시점이 되자, 저는 그 두 공간 중 하나만 사용하도록 허락받았고, 독일 영사는 두 공간 모두를 계속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집에 가족을 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나, 그는 조선 정부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제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 문

41) 최보영(2012)은 1890년 말 서신에서도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고 언급한다.
42)「헐버트가 아우에게 보내는 서신」, 1890년 11월 1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118).

제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43]

이 서신에 근거할 때, 조선 정부가 처음부터 단 한 명의 교사만 계약을 갱신하려 했다는 이광린(1999)의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헐버트의 계약 갱신은 최보영(2012)에서 언급되었듯, 주거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파국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 헐버트 스스로 계약을 철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헐버트가 동일한 서신에서 자신의 해임이 사전에 기획된 결과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 저는 지난여름 미국 공사와 조선 외무대신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제 거주지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를 곧바로 [학교에서] 내보내기로 미리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저를 겨냥한 음모에 다름없습니다. 이 정보는 그들 사이에서 통역을 맡았고, 개인적으로도 알고 지내는 인물로부터 직접 들은 것입니다.

헐버트의 진술에 따르면, 조선 주재 미국 공사와 외무대신은 헐버트가 주거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헐버트를 해임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헐버트의 육영공원 퇴진은 단순한 개인적 불화나 행정적 우연의 결과라기보다, 헐버트 자신이 표현한 바와 같이 일정 부분 '음모(conspiracy)'로 인식될 만한 정치 및 행정적 압력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역설적이게도 헐버트가 육영공원에서 배제된 과정은, 그가 조선에서 수행한 교육 활동에 대한 헌신 그 자체와 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헐버트는 한국어 습득에 진지하게 매진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고종의 신임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헐버트는 이 신임을 바탕으로 육영공원의 운영을 개선하고 학교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과 개혁 구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행보는 학교 운영을 담당하던 조선 측 관리들과의 갈등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헐버트는 이들 관리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불편한 존재이자 장애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헐버트를 육영공원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헐버트는 조선을 떠나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불행이나 좌절감을 크게 표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헐버트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계약 갱신 문제의 불확실성이 마침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안도감을 드러내는 한편, 육영공원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위에서 살펴봤던 1891년 12월 13일자 부모에게 보낸 서신에서 헐버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저는 이 학교를 떠나게 되어 오히려 기쁩니다. 육영공원은 제가 기대했던 새로운 출발을 이루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통역을 위한 학교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국왕께서는 제가 떠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서신에서 드러나듯이, 헐버트의 시각에서 1891년의 육영공원은 당초 지향했던 교육적 비전을

43)「헐버트가 부모에게 보내는 서신」, 1891년 12월 13일, 서울 (관리번호 3-008785-123).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헐버트는 육영공원이 수학, 지리, 문법, 정치경제 등을 포괄하는 근대적 종합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점차 통역과 번역 인력을 양성하는 제한적인 교육기관으로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또한 헐버트는 자신이 떠난 이후 벙커가 유일한 교사로 남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특히 벙커가 한국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를 받는 데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언급은 단순한 개인적 실망을 넘어, 헐버트가 육영공원의 향후 교육적 방향성과 실질적 교육 효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헐버트의 생각은 같은 서신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반응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된다.

> 학생들은 집회를 열어 외무대신에게 그들이 느끼는 우려를 전달하였는데, 벙커는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벙커는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여 이해를 이끌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어떤 원한이나 악의도 품고 있지 않으며, 학교에 남게 된 그를 결코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헐버트는 육영공원과의 약 5년에 걸친 관계를 마무리하고 조선을 떠나게 된다. 헐버트는 일시적인 '혼란의 시기'가 지나면 육영공원이 다시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남기며, 자신의 퇴장이 학교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의 과도기적 국면이기를 바라는 입장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후 육영공원은 헐버트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재편되지 못하였고, 결국 장기적인 제도적 정착에는 이르지 못한 채 1894년에 폐교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44]

3. 종합 논의 및 맺음말

본 연구는 1885년부터 1891년까지 작성된 헐버트의 서신을 중심으로 육영공원의 설립 준비, 초기 운영, 교육 및 학생 규모의 확대와 운영 갈등을 연대기적으로 검토하였다. 개별 서신에 나타난 구체적인 진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함으로써, 육영공원의 교육 활동과 운영상의 변화가 현장에 참여한 교사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개교 이전에 작성된 서신들은 헐버트의 내한이 일정한 숙고와 준비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국행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는 이후 동료 교사의 추천과 미국 교육제도에 대한 조사 등에 관여하면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내한 이후에는 개인적 재정 문제를 고려하는 동시에 한국어 학습과 교육과정 편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과정은 헐버트의 교육 활동이 개인의 생활과 진로에 대한 현실적 판단, 새로운 교육을 수행하려는 관심이 함께 작용한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의 내한과 활동을 후대의 상징적 위상이나 교육적 헌신만으로 설명하기보다

44) 헐버트가 떠난 뒤의 육영공원의 상황은 본 연구의 분석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폐원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1894년설과 달리, 닌스테드(Nienstadt)의 고용 및 해고와 학교의 인적 및 물적 연속성을 근거로 1895년 4월을 제시한 최보영(2012)의 견해를 밝혀 둔다.

당시의 구체적인 선택과 준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교 초기의 서신에서는 일상적인 수업 운영과 교사 및 학생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교사별 수업 시간의 분담, 학생들의 집중도와 학습 부담에 대한 고려, 알파벳과 단어 학습, 월례시험에 대한 보고는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헐버트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업의 성취뿐 아니라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김경용(2010)과 최보영(2012)에서도 검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서신을 연결하여 초기의 교육 경험과 성취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만 교사가 보고한 학습 진전과 만족감을 학교 전체의 교육 성과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영어 학습과 여러 교과의 교육이 함께 전개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헐버트와 동료 교사들은 준비 단계부터 예비 과정과 정규 과정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구상하였으며, 개교 이후의 서신에는 기초적인 영어 학습과 수학, 지리, 문법 수업, 이후 정치경제학 교육에 관한 보고가 나타난다. 국제법에 대한 언급에서도 영어 습득을 넘어 여러 지식의 교육적 가치를 중시한 헐버트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향이 계획한 교육과정 전체의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서명일(2014)이 지적했듯 영어 교재를 통한 학습 자체도 근대 지식을 접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육영공원의 교육은 영어교육과 일반 교과를 분리하여 이해하기보다, 언어 학습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헐버트의 한국어 학습 역시 수업과 학생 지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내한 직후부터 이어진 한국어 학습과 목표 언어로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은 언어 능력을 교육 활동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후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수업 내용을 자신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에서는 한국어를 활용한 학습 지원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러한 서신들은 영어 중심의 수업과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어 사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두 번째 계약 기간의 서신에서는 교육적 기대와 운영상의 불만이 함께 나타난다. 헐버트는 관리들의 재정 및 출석 관리에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학생 증원과 교육 내용의 확대를 학교 발전의 계기로 받아들였다. 1889년에는 위기가 지나갔다고 평가하였고, 1890년에는 추가 입학생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며 자비 입학의 허용을 구상하였다. 1891년에도 교육 활동을 계속하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 운영 문제가 실제로 해소되었음을 입증하지는 않지만, 후기의 상황을 지속적인 쇠퇴나 교사의 의욕 상실로만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운영에 대한 불만 속에서도 학교의 개선과 확대에 대한 기대가 이어졌다는 점은 여러 시점의 서신을 연결하여 살펴볼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육영공원을 둘러싼 갈등은 헐버트 개인의 평가뿐만 아니라 당시 학생들이 처한 현실, 관리들의 미숙한 대처, 그리고 정부의 불안정한 지원을 함께 고려해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김경용(2010)이 지적했듯 좌원(左院) 학생들의 공무 수행과 출석 조정을 감안할 때, 낮은 출석률을 단순한 학습 태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와 동시에 최보영(2012)이 밝힌 바와 같이, 관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정부의 뒷받침 부족 역시 학교 운영을 어렵게 만든 주요한 배경이라 하겠다. 이처럼 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리들에 대한 불만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성과나 위기 원인을 어느 한쪽의

요인만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서신에 드러난 헐버트의 개선 요구는, 이러한 복합적인 제약 속에서 교사가 당면한 현안을 파악하고 대처해 나간 능동적인 대응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1891년의 계약 철회와 퇴진 역시 헐버트의 교육 활동의 지속 의사와 생활 및 계약 조건이 맞물린 사건이었다. 최보영(2012)이 이미 검토했듯, 헐버트는 학교 이전에 따른 주거 문제를 계약 철회의 직접적인 계기로 설명하였다. 그에 앞선 잔류 의사와 이 서신을 함께 살펴보면, 교육을 계속하려는 기대가 주거 조건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실현되지 못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사전 합의나 '음모'에 관한 진술은 헐버트가 자신의 퇴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이며, 관계자들의 의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잔류가 학교의 위기를 해소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퇴진을 곧바로 폐원과 연결하기보다, 당시의 갈등과 이후 학교의 변화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헐버트 서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기별로 연결하여 육영공원의 교육 활동과 운영상의 변화를 교사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 조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사적 서신에는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거나 입장을 정당화하는 서술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다른 관계자들의 입장이나 헐버트가 제안한 개혁 구상의 실제 시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찬(官撰) 기록과 외교문서, 학생 및 동료 교사의 기록 등 다양한 관련 사료를 추가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고, 1891년 이후의 학교 운영과 제도적 변화까지 추적함으로써 육영공원의 실체를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출처: https://search.i815.or.kr

高宗實錄 卷23, 고종 23년(1886) 7월 2일(음력), 育英公院設學節目. 출처: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40_0020

강세영 (2013). 헐버트의 교육 관련 활동 연구: 그의 서신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교원대학교.

김경민 (2009). 育英公院과 헐버트. 고황논집, 45, 11-34.

김경용 (2010).『育英公院日錄』연구. 교육사학연구, 20(2), 25-82.

김명배 (2006). 개화기의 영어 이야기.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출판사.

문용 (1976). 韓國 英語 敎育史(1883~1945). 성곡논총, 7, 618-654.

서명일 (2014). 육영공원의 교과서와 근대 지식의 전파. 한국사학보, 56, 181-213.

이광린 (1998). 헐버트의 한국관. 한국 근현대사 연구, 9, 5-21.

이광린 (1999). 한국개화사연구. 서울: 일조각.

이종배 (1978). 舊韓末의 英語敎育과 敎授法. 영어교육, 15, 1-29.

최보영 (2012). 育英公院의 설립과 운영실태 再考察.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287-319.

Gilmore, G. W. (1892). Korea from its capital: with a chapter on missions.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school work.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formation System. Available: https://search.i815.or.kr

Gojong sillok [Annals of King Gojong], vol. 23, 23rd year of King Gojong's reign (1886), 1st day of the 8th lunar month, Yugyeong Gongwon Seolhak Jeolmok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Yugyeong Gongwon]. Available: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40_0020.

Choi, Bo-young (2012). Review on the establishment of Yookyounggongwon (the Royal English School) and its management conditions.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42, 287-319.

Kang, Se-young (2013). A Study on Homer B. Hulbert's Works in Royal Schools of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His Letter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Gyung-yong (2010). A study on the『Daily Record of The Royal Academy』(『育英公院日錄』) in late Chosen Dynasty. *History of Education, 20(2)*, 25-82.

Kim, Kyeong-min (2009). Yugyeong Gongwon and Homer Hulbert. *Gohwang Nonjip, 45*, 11-34.

Kim, Myung-bae (2006). Tales of English Learning during the Korean Enlightenment Period. IGS E Publisher.

Lee, Jong-bae (1978). English Education and Teaching Methods in the Late Joseon Period. *English Teaching, 15*, 1-29.

Lee, Kwang-rin (1998). Hulbert's View of Korea.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9,* 5-21.

Lee, Kwang-rin (1999). Studies on the History of Enlightenment in Korea. Ilchokak.

Moon, Yong (1976). History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Sungkok Nonchong, 7*, 618-654.

Seo, Myong-il (2014). Textbooks of Yukyeonggongwon and Diffusion of Modern Knowledge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56,* 181-213.